



교통·물류·생태 삼박자 새만금, 서해안 중심지로

고속도로 개통·신항만 개항·수목원 등 SOC·산업·관광 인프라 결실
'전북형 메가포트' 구축으로 글로벌 물류·친환경·관광 거점 기반 마련

새만금이 교통·물류·관광·생태가 어우러진 서해안 중심지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2025년 11월), 새만금 신항만 개항(2026년 하반기), 국립새만금수목원 준공(2027년 2월) 등 대형 인프라가 연이어 완공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새만금-전주 30분 시대 개막

지난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제 진봉에서 완주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총연장 55.1km)가 오는 11월 21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11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2010년 착공 이후 15년 만이다. 총사업비 2조7,424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완주에서 새만금까지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시켜 43분이나 줄어든다.

이 도로는 4개 분기점과 3개 나들목, 2개 휴게소를 갖췄다. 특히 도로 이용객들을 위해 김제 흥사동에 들어서는 김제휴게소는 대지면적 3만 6,218㎡ 규모로 1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소 7대를 포함한 친환경 시설을 갖춘다.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4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국가 간선도로망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새만금과 내륙 간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로 유발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관광객 이동시간 단축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메가포트' 새만금 신항 본격화

새만금 신항만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들여 9선석과 451만㎡ 배후부지를 갖춘 대규모 항만으로 조성된다. 현재 1·1단계(5만 톤급 2선석) 공사는 88% 진행됐으



새만금 IC 통게이트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며, 2026년 하반기 개항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는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를 통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통합한 '새만금항(One-Port)' 체계를 확정했다. 항만 간 기능 중복을 없애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통합이다. 항만운영사로는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사가 참여한 '새만금신항만(주)'이 선정됐으며, 해상풍력 기지 등 신산업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는 신항을 중심으로 수·식·식품산업·관광허브를 조성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48.2km)와 크루즈 터미널을 포함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해 미래형 복합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 개원 준비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총면적 151ha, 사업비 2,087억 원)은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국내 최초 해안형 수목원으로서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맡는다.

해안식물 전시·경관·연구지구로 구성된 이 수목원은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막는 방풍림 식재와 17개의 전시원 등이 건설된다. 현재 기반시설과 건축 골조공사,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의 34%(10월 말 기준)가 완료됐다.

▲해양관광·레저산업 동반 육성

도는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해양관광과 레저산업도 함께 키우고 있다.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확보 및 기반시설(국제여객·크루즈 터미널) 구축 추진근거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387억 원을 투입해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해양레포츠 교육, 수상스키·웨이브보드 대회 등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거점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고속도로, 항만, 수목원,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과 글로벌 메가센트릭스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대형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5 전주비빔밥 축제' 대형 비빔밥 비비기 퍼포먼스에 참석해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2025 전주비빔밥축제는 이날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택시장 안정 대책 따른 중개업계 역할 모색

김윤덕 국토부장관, 중개업계와 간담회… 중개시장 활성화 위한 과태료 합리화 등 제시돼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중개업계의 역할,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건설산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중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뒀. 장관과의 만남같은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중개업계는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합리화, 중개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방안을 건의했고,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계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개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중개시장 활기를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뒷받침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개업계에 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국내 산업을 비롯한 건설 등 전통적 산업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실을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부동산 중개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희성 기자

한 줄 소식

법무부 "관봉권 폐기·쿠팡 불기소 상설특검 결정"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정읍시의회

www.jcc.or.kr